

## 국어 기본어휘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조남호

국립국어연구원

### 1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50만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가 수록된 것은 아니다. 일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선별된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옛말, 방언, 북한어 등은 특수한 성격의 단어이므로 제외한다 해도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최소 수십만 어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십만 어나 되는 단어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저마다 알고 있는 단어에 차이가 있다. 단어 각각이 국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도 않다. ‘것, 있다, 하다, 되다’처럼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단어도 있다.

수십만 어나 되는 단어를 모두 알 수는 없고 단어 각각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는 데서 소수의 필요한 어휘만을 선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본어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본어휘에 제일 주목한 것은 언어 교육 분야

이다. 언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말부터 어떠한 순서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이 모어를 읽고 쓰는 교육을 시작하는 학생들이든 제2 외국어로서 언어를 배우는 성인 외국인이든 어휘의 선별에 관한 고민은 똑같기 때문에 자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모두에서 기본어휘에 관심을 두고 목록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기본어휘에 대한 관심은 외국의 경우 20세기 전반기에 이미 나타났고 기본어휘 선정 결과도 그때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교부에서 1955년에 어휘 빈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조사 결과가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학년별로 제시되는 어휘의 한계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기본어휘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기본어휘의 선정은 이미 낡은 주제가 된 감이 없지 않은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이후 지금까지 기본어휘에 관한 연구나 목록 선정이 충분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에 언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본어휘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국어에서 기본어휘에 관한 논의는 국어 교육에 관한 논의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논의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여기는 기본어휘 선정의 현황을 검토하는 자리이므로 기본어휘 목록이 제시된 연구를 중심으로 기본어휘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한다. 기본어휘라는 용어 대신 교육용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자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교육용 어휘는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선별한 것으로 교육용 기본어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국어 교육에 사용될 기본어휘의 선정에 관해서 보도록 한다.

- 서정국(1968). 『국어 기본어휘의 연구-국민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어휘 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1967년과 1968년에 간행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학기별 12책에 나오는 96,068어의 빈도 조사
  - 빈도수 6 이상 2,365어를 선정<sup>1)</sup>
  
- 이응백(1972). 「국민학교 학습용 기본어휘」. 『국어교육』 18.
  - 어른 작품, 어린이 작품, 어린이의 말 녹음 자료 등 251,485어 분량의 자료에서 빈도 조사
  - 빈도수 10 이상 2,713어를 선정
  
- 이응백(1978). 「국민학교 입문기 학습용 기본어휘 조사 연구」. 『국어교육』 32.
  - 1학년 교과서, 1학년 어린이의 말 녹음 자료, 입학 전 어린이의 말 녹음 자료 등 15,130어 분량의 자료에서 빈도 조사
  - 아래의 방법으로 1,480어 선정
    - 빈도 조사에서 나온 전체 어휘 2,280어 중에서 빈도 1짜리 996어 제거
    - 빈도 1이지만 위에 제시된 이응백(1972) 자료에 저학년 어휘로 들어 있는 184어 추가
    - 고유명사 제외
    - 이응백(1972)에 저학년 어휘로 나타난 것 중에서 1955년 문교부 조사 빈도 자료에서 39회 이상 나타난 단어 추가
  
- 이응백·이인섭·김승렬(1982). 「국민학교 아동의 어휘 조사 연구」. 『국어교육』 42·43.

---

1) 서정국(1968)에서는 2,365어는 학습 기본어휘라 하였으며, 따로 빈도수 40 이상 402어 중에서 210어를 선정하여 기본어휘라고 하였으나 이는 기초어휘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여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다.

- 이응백(1972)에서 사용한 자료와 1982년에 나온 초등학교 1, 2, 3학년 1학기 모든 교과서에서 빈도 조사
- 아래의 방법으로 15,005어 선정
  - 이응백(1972)에서 조사된 17,335어를 사정하여 널리 쓰이지 않는 서구계의 외래어, 의성어 등 제거
  - 사정한 목록을 초등학교 현직 교사 8인에게 위촉하여 취학 전,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4개 수준으로 분류
  - 분류 결과를 수합하여 정리
  - 교과서의 학년별 빈도 조사와 대비하여 4개 수준 정리
  - 1수준(취학 전) 1,600어, 2수준(1·2학년) 4,389어, 3수준(3·4학년) 5,840어, 4수준(5·6학년) 3,176어 분류
- 김희진(1990). 「중학교 교육용 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71.
  - 국어연구소에서 조사한 중학교 교과서 국어, 국사 및 도덕, 사회의 빈도 조사 결과를 이용
  - 빈도수 16 이상 2,795어를 선정
-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국학자료원.
  - 국어연구소에서 조사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빈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14,600어, 중학교 5,500어 총 20,100어를 선정
  - 이응백·이인섭·김승렬(1982)의 1수준 어휘를 기본어휘 수준 교육용 어휘로 수용

서정국(1968)은 기본어휘를 주요 주제로 다룬 최초의 업적인데 국어 교육용인지 한국어 교육용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기본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렇지만 1968년이라는 시기는 아직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비중이 주어질 시기가 아니었고 기본어휘의 선정에 이용한 자료가 국어 교과서

인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 다룬다.

국어 교육은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관점에 따라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국어 교육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본어휘도 성장의 각 단계에 맞춘 목록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아직 그 정도로 연구가 깊어진 상태는 아니다. 위에 제시된 연구 성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본어휘 선정이 주된 관심이었고 중학교 교육에 필요한 어휘의 선정이 시도된 정도이다. 주목할 점은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어휘는 학년을 구분하여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응백(1978)과 이응백 외(1982)가 그러한 시도의 결과이다. 초등학교 교육 중심으로 논의가 먼저 시작되고 나아가 학년을 구분하려는 시도까지 나온 것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기본어휘 선정의 필요성이 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 단계가 내려갈수록 기본어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셈인데 이 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 들어 미취학 아동의 교육이 확대되고 그 나이 대상의 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 미취학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어휘의 선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기본어휘에 관한 논의는 이응백 외(1982)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밖에 없다.

위에 제시된 연구 성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빈도 조사를 토대로 일정 빈도 이상의 어휘를 기본어휘로 선정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빈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정 순위 이상의 단어를 선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둘을 혼합하여 빈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어휘 목록이 선정되어야 한다.

빈도 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정 순위 이상의 단어를 기본어휘로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빈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

료의 분량과 범위이다. 자료의 분량이 적으면 실제 빈도가 적어도 제한된 조사 자료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일 수 있고 범위가 제한되면 한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과서를 자료로 하여 어휘 빈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어휘 선정이 이루어진 것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중요한 흠결이 될 수밖에 없다. 범위가 교과서로 한정된 것도 문제점이지만, 분야의 특성상 어휘 사용이 통제된 자료로 국어 사용자들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양상과는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 교과서가 주요 자료가 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이다. 1955년에 이루어진 문교부의 어휘 빈도 조사가 지닌 중대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자료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이들 조사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어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던 교과서들이 학생들의 어휘 사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어휘 통제를 적절히 하면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다. 물론 교과서에는 집필자의 교육 경험이 녹아 있으므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빈도 조사도 기본어휘 선정에 중요하게 참고할 가치는 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빈도 조사 결과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응백(1972, 1978), 이응백 외(1982)에서는 이 점이 고려가 되었다. 빈도 조사 대상이 교과서로 국한이 되지는 않았다. 음성 녹음 자료까지 이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말과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보완하려면 음성 녹음 자료가 포함되는 것은 불가결하다. 그런데 이 논의들이 그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이 된 자료의 분량이 적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람들이 말하거나 쓰는 모든 말을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휘 빈도 조사는 불가피하게 표본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본 조사로부터 적절한 결과를 얻고자 하면 일정 분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에 제시된 연구 성과에서

조사된 자료의 분량은 최대가 30만 어 내외이다. 표본이 어느 정도 분량이 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 정도로는 빈도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분량임은 틀림없다.

지금 지적한 문제점을 연구자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다. 기본어휘 선정에 앞서 문제점이 있음을 자인하였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신뢰도 있는 자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모를 제한하였고 하나의 시도로서 기본어휘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실 신뢰할 만한 빈도 조사가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빈도 조사가 대규모로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일인데 인력 투입에 필요한 예산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로나마 기본어휘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 결과 기본어휘를 선정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이 하나의 시도로만 평가될 뿐 여전히 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어휘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감스럽지만 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어휘 선정은 아직까지 성과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어휘의 선정이 60년대 후반에 이미 결과물을 내기 시작한 데 비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어휘의 선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논의가 별로 없었다. 한국어 교육이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현황으로 보면 오히려 국어 교육 분야보다 성과가 많다. 기본어휘 목록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보도록 한다.

-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각종 어휘 빈도 조사 자료와 어휘 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
  - 2,000어를 선정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1998년에 한국어 추진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후보 목록과 최길시(1998), 연세대 교재 1, 2급에 나오는 어휘를 비교하여 먼저 공통되는 단어 선정
  - 연세대 교재 색인에 누락된 어휘, 분석 기준의 차이로 누락된 어휘, 체계의 빈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 생존에 필요한 어휘, 공식 교육에 필요한 어휘, 기본적인 문화 어휘 등을 추가로 선정
  - 725어를 선정
- 서상규(2002). 「우리사전의 중요어 목록(2차 조사) 총 2,975단어」. 미 발표.
- 아래의 방법으로 중요어 선정
    - 5종의 빈도 목록에서 중요어 2,028어 선정
    - 14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중요어 2,025어 선정
    - 기본어휘 목록집 등 목록류에서 1,975어 선정
  - 중요어를 정리하여 2,975어 선정
- 임철성(2002). 「초급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4.
- 아래의 방법으로 1,038어 선정
    - 연세대 말뭉치에서 빈도 5,000 이상인 어휘
    -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급용 한국어 교재들에 등장하는 어휘에 대한 계량 분석
    - 어휘의 체계를 검토한 어휘의 보충, 학습자들의 생활어휘와 학습을 위한 어휘 및 한국 문화의 이해를 위한 어휘의 보충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보고서.
- 분야별로 일정량의 자료를 조사하여 150만 어절 규모의 어휘 빈도 조사 수행



- 빈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 전문가 6인이 어휘 선정
- 전문가 6인의 선정 결과를 정리하고 조정하여 5,965어 선정
  - 1단계 982어, 2단계 2,111어, 3단계 2,872어

위에 제시한 연구 성과로 보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어휘에 관한 논의가 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여러 업적이 동시에 나왔다. 그만큼 한국어 교육에서 기본어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성과가 집중되면서 논의도 깊이를 더했다. 예를 들어 조현용(2000)은 선행 연구들을 반성하면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를 받아들였다. 조남호(2003)에서도 기본어휘 목록 시안을 만든 후 조현용(2000)과 서상규(2002)에 포함된 어휘와 비교하여 추가할 것은 추가하였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어휘 목록의 선정 방법도 다양한 것이 국어 교육에서의 성과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최길시(1998)은 현장 경험을 중시하면서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에 비해 조현용(2000)은 기존의 성과를 비교하여 목록을 우선 만들고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상규(2002)는 1998년 한국어 추진 기반 사업에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 후보를 선정한 연구부터 시작하여 여러 연구를 거치면서 나온 성과가 최종 정리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체 연구 성과와 기존의 논의들에서 중요어를 선정하여 모으는 방식으로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이용한 점에서는 조현용(2000)과 공통점이 있지만 자료의 범위가 더 넓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어휘를 추가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임철성(2002)는 기존의 빈도 조사 결과를 이용하면서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어휘를 보충하여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국어 교육 분야에 비해 기본어휘 선정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었던 데는 컴퓨터의 등장이 한몫을 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간이 필요로 되는 방대한 작업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시도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국어 교육 분야에서 처럼 일일이 카드에 적고 사람의 손으로 정리하는 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공이 들어가야 할 일은 많다. 임철성(2000)에 이르기까지 기본어휘 선정에서 빈도 조사 부분이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빈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아직 불완전하여 빈도 조사 결과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고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여전히 빈도 조사에는 사람의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빈도 조사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 빈도 조사를 피한 것이다.

이 점에서 조남호(2003)은 대규모의 빈도 조사를 토대로 기본어휘를 선정하여 기존의 성과와 차이가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웬만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먼저 빈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1955년 문교부의 빈도 조사 이후로 그에 필적할 만한 분량으로 어휘 조사를 한 것이다. 어휘 선정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길 문제점을 피하였다. 한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인에게 빈도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를 참작하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휘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한 개인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인에게 선정을 의뢰하고 그것을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필자 스스로 이 작업을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필자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아 선정의 원칙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지 못해 전문가 6인이 1차로 선정한 어휘는 편차가 컸다. 회의 등을 통해 보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하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어휘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국어의 총어휘를 조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 김광해(2001). 『한국어의 등급별 총어휘(낱말 v.2001) 선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1955년 문교부 빈도 조사 결과 등 14건의 목록을 조사
  - 메타 계량 방법으로 단어 선정
  - 1단계에서 7단계까지 237,990어 선정

김광해(2001)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국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를 총망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어휘의 수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논의에서 거론된 어휘의 수를 매우 능가한다. 그렇지만 등급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기본어휘 목록의 선정 노력도 함께 포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목록은 국어 교육에서는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필요한 어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교육이든 한국어 교육이든 총어휘 목록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 3

기본어휘의 선정은 대체로 불과 몇 천에 해당하는 어휘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몇 천의 어휘를 선별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기본어휘를 선정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동안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작업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기본어휘 목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황에서 보았지만 국어 교육에서는 새로운 기본어휘 목록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과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록의 선정이 시급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해도 목록 선정 이후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 목록이 필요하다. 새로운 말의 등장과 정착으로 예전에는 없던 말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가 아닐까 한다. 새로운 목록의 선정은 교육의 단계를 구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이 증대하므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기본어휘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단계별로 어휘 목록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인을 위한 어휘 목록도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 단계별 기본어휘의 선정이 동시에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 분야에 비해 한국어 교육 분야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건이 훨씬 좋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기본어휘 선정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외국인을 위한 기본어휘 목록 등 목록의 다양화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서둘러서 기본어휘를 선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유용한 기본어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어휘 선정에 앞서 여러 종류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어 화자들의 어휘 사용 능력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다. 필자가 기본어휘 선정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곤혹스러웠던 점은 몇 어나 기본어휘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수는 직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어휘의 선정이 필요한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 바탕 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구사하는 어휘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유아 시기의 아동들은 어느 정도의 말을 익히게 되며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와 같은 의문에 답이 구해져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기본어휘의 선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휘를 익혀야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경험적으로 어휘의 수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외국에서의 연구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면서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어휘 사용 능력에 대한 다양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어휘 자체에 대한 연구도 축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례로 의미 영

역의 예를 짚어 보자. 기본어휘를 선정할 경우에는 의미 영역별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같이 선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를 헤아리는 단위이다. ‘하나, 둘, 셋’ 등의 단어들은 교육에서 동시에 가르쳐야 할 단어들이다. 그런데 빈도 조사를 하면 이들 단어는 결코 비슷한 빈도로 나오지 않는다. 빈도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빈도에 의존하여 어휘 선정이 이루어지면 빈도의 차이로 인해 일부 단어가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의미를 고려하여야 할 것은 많다. 의미에 따라 어휘를 분류한 어휘집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국어에 대해서는 아직 분류 어휘집이 없다. 의미 영역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 그 성과를 이용하여 기본어휘 선정 시안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어휘 선정을 위해 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휘 자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빈도 조사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어 어휘의 사용 빈도에 대한 조사로는 1955년 문교부에서 내놓은 결과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국어 어휘의 사용 양상이 변화를 하여 자료로서의 이용 가치가 낮아졌다. 앞서 제시하였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실제로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중에 문교부 자료를 이용한 사례는 드물다. 앞서 지적했듯이 빈도 조사는 개인이 하기에 규모가 크다는 부담이 있어 그동안 미루어졌던 일인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가 기관에서 빈도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필자가 연구 책임자가 되어 2002년에 150만 어절 규모의 빈도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어느 정도 빈도 조사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지금도 빈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조사 결과가 보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인 연구자는 빈도 조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별도로 개인 연구자가 소규모로 목적에 맞게 빈도 조사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 교과서처럼 제한된 범위에서의 어휘 빈도 조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양한 빈도 조사 결과가

있으면 기본어휘 선정을 위한 여러 기준 마련이라든지 실제 목록 선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어휘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미 이루어졌던 기본어휘 선정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기본어휘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어휘 선정의 기준이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선정 기준이 여러 논저에서 천명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용백(1972)에서는 사용도가 높은 어휘,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조어력이 높은 어휘, 기초적인 어휘라고 제시하였다. 이충우(1994)에서는 여기에 더해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 적용성이 큰 어휘, 시대가 요구하는 어휘를 기준으로 덧붙였다. 고유명사, 계급명, 의성어·의태어, 은어·비속어·유행어·방언, 고어 등은 한정된 범위에서 선정한다는 기준도 추가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조현용(2000)에서 체계의 빈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 생존에 필요한 어휘, 공식 교육에 필요한 어휘, 기본적인 문화 어휘와 같은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검토하여 기본어휘 선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본어휘 목록에 포함할 범위나 단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기본어휘 선정은 조사, 어미를 제외한 채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언어 교육에서 조사, 어미에 대한 교육이 등한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 어미의 선정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선정할 필요도 있다. 조남호(2003)를 기획할 때도 조사, 어미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나 자문을 하는 중에 별도의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기본어휘라는 용어에 얽매어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 기본어휘 선정의 목적이 효과적인 교육에 있다고 하면 조사, 어미의 경우도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어휘 선정 단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단어는 단일어뿐만 아니라 복합어, 파생어도 많이 있다. 복합어나 파생어는 단일어의 함으로 의미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단일어 중심으로 어휘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복합어와 파생어를 각각 선정할 것인가도 교육 효과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본어휘에 관한 논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어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어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기존의 단어 중에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기본어휘 선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의 작업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곧 기본어휘로 선정된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여 여러 의미 중에서도 다시 기본어휘에 포함될 의미를 가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의 단어는 종종 여러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여러 의미들이 모두 동등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일부 의미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일이 참으로 많다.